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 - 28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찰일지로 살펴본 지적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례연구

김미숙*

이 연구는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성찰일지를 분석하여 성인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이해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7개의 성찰일지를 활용한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되었다. 분석은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시설과 가족 간 협력적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동안에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시설 퇴소 후에는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가 필요하다. 결론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사회복지 실천과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정체성과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적장애인, 가톨릭 사회복지, 자립생활, 성찰일지, 카리타스(사랑실천)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연구전담조교수

www.kci.go.kr

Ⅰ. 서론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2021년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자립생활 운동은 2000년 전후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적장애인의 자립 권리도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낮은 지적 능력과 부적응 행동은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유병주, 2004; 박진영, 2011).

이에 대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UN CRPD, 2022)는 지적장애인이 개인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시설에 수용하거나 시설 생활을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포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서경주, 박수경, 이정하, 2022).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장애인복지 실천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전문가주의에 기반한 정형화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욕구 실현과 역량 강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중심실천(Person-Centered Practices)'이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열망, 욕구, 선호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획하고, ELP(Essential Lifestyle Planning) 도구를 사용하여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상종, 장순욱, 2021: 8; Smull et al., 2005: 17).

현재 지적장애인의 자립 준비와 관련된 연구들은 시설 생활, 지역사회 거주, 자립 준비 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고, 시설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이연(2017: 25)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훈육 과정을 통해 점차 경험이 쌓이면, 사회복지사들은 당사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대처 능력이 향상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인의 욕구에 맞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천가의 현장 경험은 지적장애인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입·퇴소 및 자립 과정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금전 문제, 도벽, 폭력, 자해, 가출 등의 부적응 행동은 종종 시설 퇴소, 재입소, 전원의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시설

www.kci.go.kr

종사자의 경험을 연구하여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실천적 통찰을 얻을 필요가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24.4.19.)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1,207개의 가톨릭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을 넘어, 가톨릭 신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 정체성은 종교와 관계없이,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황종열, 도건창, 김미숙, 2021). D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산하 기관 종사자들의 실천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찰일지를 모집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를 축적해왔다. 이 성찰일지를 통해 종사자들의 실천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실천적 통찰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성찰일지를 분석하여 성인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이해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문헌고찰

1. 가톨릭 사회복지의 역사적 역할과 정체성

가톨릭교회는 한국 근대 사회에서 취약한 공공복지 부문을 보완하고 선도하는 민간복지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교회의 주요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명은 가톨릭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기초가 된다. 선행연구자들은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했다. 김성철(1995)은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하느님 사랑'의 신앙고백과 '이웃사랑'의 실천 차원에서 설명했으며, 최무열(1999)은 사회문제 해결, 교회개혁, 생명 구원 등을 위한 가톨릭교회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0년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가톨릭은 개신교와 함께 정부의 중요한 민간복지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정부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도 증가했고, 종교 사회복지기관의 공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종속과 규제 압력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사회복지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약자들의 보호자에서 복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자로 역할이 변화하면서, 종교사회복지

www.kci.go.kr

의 정체성 유지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김인숙, 2004).

가톨릭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공유지만, 가톨릭 신앙과 종교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출발점이 다르다. 사회복지는 인간존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인본주의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가톨릭 사회복지는 신의 모상으로서 인간이 갖는 존엄성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유영준, 2018).

무르시아 가톨릭대학교 카리타스학과[1] 교수인 라이너 게리히(Rainer Gehrig, 2017)는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사랑', '개방성', '협력'으로 요약했다(심현주, 2019: 28). 교회의 활동은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출발하며, 사랑의 실천은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을 장려한다. 따라서 가톨릭 사회복지는 '인간 본성'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비신자의 이웃사랑 활동 속에서도 인간 본성의 보편적 가치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톨릭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그리스도교 정신에 부합하는 사랑실천을 촉진한다.

2. 가톨릭 기반의 장애인복지 실천 연구

박영만과 김미숙(2022: 52)의 연구는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에서 30년간 근무한 주저자의 자전적 실천 사례를 통해 정신장애인 시설 이용자와의 인격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접근할 때, 이들을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인식해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즉, 정상적인 감정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을 구별하고,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정신장애인의 증상과 그들의 삶을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용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 문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구별하며, 도덕적·윤리적 잣대로 판단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인격적 관계로 다가갈 때 그들이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용세응과 김승주(2023: 32-43)는 가톨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과 노숙인 등 시설

---

1) '카리타스(Caritas)'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반한 교회의 '사랑실천'을 의미한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이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카리타스학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사랑실천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리스도교다운 사랑실천을 촉진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건창, 2022).

www.kci.go.kr

VOICEYE voiceye.com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는 실천가들의 경험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실천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실천 현장을 지켜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행동의 원인 탐색하기'에서는 이용자가 사랑의 결핍과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으로 상처가 있음을 발견했다. '돌봄의 자세 갖추기'에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돌봄에서 의미 찾기'에서는 돌봄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자신의 도움으로 더 나빠지지 않음에 기뻐하며 돌봄의 의미를 발견했다.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기'에서는 이용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수용했다. '동반의 노력하기'에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행동의 이유를 탐색하고, 함께 극복하며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했다. 이 연구는 실천 과정을 통해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가 동반 성장을 이루고,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박재완, 김도우, 박지혜(2024: 55-56)는 가톨릭 정신으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경험을 질적연구로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들은 원가족의 돌봄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시설에 입소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름을 받은 수도자, 봉사자, 종사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신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이러한 '사랑받고 있다는 자각'은 이용자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시설 내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실천가들이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이용자들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봄의 자세를 유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사랑을 통한 치유와 회복 경험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험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제로 연구하여 실천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질적연구에서 성찰일지의 유용성

성찰일지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자기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천의 질을 향상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성찰(reflection)은 자기 행동을 깊이 되돌아보는 행위로, Dewey는 이를 자신의 신념이나 실천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숙고하는 '성찰적 사고(reflective

www.kci.go.kr

thinking)'로 정의했다(유영준, 이현지, 김민수, 2020). 성찰은 실천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도록 이끌며,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줄이고, 실천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양혜원, 최정숙, 김희수, 2018). 성찰일지는 단순히 업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업무 일지와 차별화된다. 업무 일지가 주로 일정과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성찰일지는 깊은 통찰을 통한 실천적 성장을 추구한다.

D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실천가들의 보다 나은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찰일지를 모집하고 작성법 교육을 제공했다. 이 교육에서는 Gibbs(1988)가 제안한 6단계 성찰 과정(기술, 느낌, 평가, 분석, 결론, 계획)을 예시로 제시하였으나(유영준, 2009), 실천가들이 작성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7개의 성찰일지는 6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황종열 외(2021: 162)를 참조하여, 성찰의 6단계 중 기술과 느낌을 통합하여 '기술(description)'로, 평가, 분석, 결론을 '평가(evaluation)'로, 계획을 '계획(action plan)'으로 축약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했다.

2. 연구참여자 선정

질적연구에서 참여자 선정 기준은 적절성과 충분성이다. 적절성은 연구 주제에 대해 가장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가들이 작성한 성찰일지 중 실천 경험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성찰이 포함된 사례를 선정했다. 충분성은 연구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 포화는 질적연구의 엄격성을 보장하는 요소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선험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Morse, 2015). 본 연구에서는 주제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7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가톨릭사회복지회가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모집한 성찰일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성찰일지는 공문을 통해 현장 실천가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요청되었으며, 총 19명의 실천가가 참여했다. 성찰일지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논문으로 작성되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음이 사전에 안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7개 성찰일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연구참여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실천가로, 이들이 기록한 성찰 내용과 관련된 시설 이용자 7명은 보조연구참여자로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VOICEYE voiceye.com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연령대	소속 기관	직책	근무 기간
주연구참여자		40대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8년
구분		**장애**	**입소한 시설의 종류**	**현재 거주지**	**주요 어려움**
보조 연구 참여자	A	만18세 이상 법정 등록 지적장애인	보육원, 그룹홈, 장애인시설	시설 거주	채팅, 금전 관리
	B		보육원,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거짓말, 자해
	C		장애인시설, 전원	시설 거주	도벽, 폭력
	D		보육원, 장애인시설, 전원	자립생활	부친이 금전 소비
	E		보육원, 장애인시설	시설 거주	감정조절, 폭력
	F		장애인시설	시설 거주	금전 관리
	G		보육원, 장애인시설	자립생활	채팅 만남, 가출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는 특정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 생활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두고 수행되는 경험적 연구로,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15). 질적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례연구는 심층 면담 없이도 기타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윤견수, 2013).

본 연구는 7개의 사례를 다룬 다중 사례연구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으로 진행했다(조흥식 외 공역, 2015). 먼저, 성찰일지를 반복해서 읽고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둘째, 각 사례에 대해 생애사를 간추려 작성했다. 셋째, 사례 내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개념들을 모아 개방코딩을 한 후,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하위범주로 재분류하고, 이를 기술, 평가, 계획의 성찰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넷째, 사례 간 분석에서는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위범주들을 모아 범주를 도출하고, 새로운 범주를 기존 범주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섯째, 사례 간 분석 결과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설 입·퇴소 과정', '시설 생활', '시설 퇴소 후'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성찰의 3단계로 범주를 배치했다. 끝으로, 분석 결과로 도출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더 나은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일반 사회복지 실천과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논의했다.

www.kci.go.kr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원화'와 '동료집단 지지'를 사용했다(유태균 역, 2001). 먼저, 다원화란 다양한 시각이나 관점의 수렴을 말하며, 다양한 자료출처 또는 해석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다원화'를 통해 하나의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과 관점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가톨릭 사회복지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가톨릭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실천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동료집단 지지'에서는 가톨릭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질적연구 전문가들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그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간추린 생애사와 사례 내 분석

1) 사례 A: 보육원 퇴소 후 금전 관리 어려움으로 시설 재입소

A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 퇴소했다. 이후에 공동생활가정에 6개월 동안 생활하며 자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금전 관리와 채팅 문제로 통장 잔액이 바닥나며 어려움을 겪었다. 보육원에서는 퇴소자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시설로의 재입소를 의뢰했다. 처음에는 장애인시설 직원들이 자립을 경험한 이용자가 다시 시설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A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보육원 직원과 장애인시설 직원이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그런데 A의 입소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억지로 입소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고민이 있었으나, A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해보기로 했다. 장애인시설 상담자는 A와 세 차례 입소 상담을 진행하며, 시설 간섭과 규칙으로 자유로운 생활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담자는 A의 자립 욕구와 경제 활동을 통한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시설에서 간섭보다 효율적인 금전 관리만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A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전 연습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입소 후 함

www.kci.go.kr

VOICEYE voiceye.com

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시설 내 규칙과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성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필요 이상의 제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세 차례 상담 후, A는 입소 예비체험을 결심했고, 이 기간에 다른 이용자들과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A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 복용을 시작했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편해졌고 자살 생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현재 A는 시설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직장에서 작업장 전환을 고려 중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용자 중심에서 A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한 것이 성공적인 시설 재적응에 기여했다고 성찰했다. 또한, 한 번 자립에 실패한 A에 대해 만일 선입견으로 입소를 거부했다면 A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며 미안함을 표명했다. 사례 A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A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시설 간 정보 전달과 협력, 보육원에서 퇴소자 사후관리 어려움, 자립 후 금전 관리와 채팅 만남 문제, 퇴소 후 자기관리의 어려움, 자기결정의 모호함, 당사자는 재입소에 거부감 표현, 억지로 입소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자립의 어려움, 자립 후 시설 재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당사자는 시설 간섭과 규칙으로 인해 자립을 원함, 당사자의 자기결정 존중과 시설 지원 간에 실천적 고민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용자 중심 실천, 시설 간섭이 아닌 효율적인 금전 관리 지원, 예비 체험을 통해 시설 생활 거부감 완화, 정신적 및 정서적 안정 지원

2) 사례 B: 관심받기 위한 도전적 행동과 자해로 정신병원 입원

B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보육원의 의뢰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경계성 장애를 보이며, 사회적응 기술이 뛰어나지만, 직원이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입소 후, B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용돈을 갈취하는 등 도전적 행동을 했고, 직원이 잘못을 직면하면 가출하거나 늦은 귀가를 했다. 본인의 요구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나 약을 먹지 않고 숨기는 일이 발생했다. 직원이 학대나 언어폭력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확인해보면 사과하며 울기도 했다. B는 일탈적 행동과 거짓말 수위가 늘어나 길 가던 행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으나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거짓임이 드러나자 자신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B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이 자주 피해를 입었으며,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www.kci.go.kr

도전적 행동을 통해 직원의 관심을 유도하는 B에게 무관심한 대응을 하면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으나 더욱 강한 도전적 행동을 보였고, 본인의 요구로 여러 차례 생활관을 이동하면서 담당 직원의 교체가 빈번해졌다. 도전적 행동을 일삼는 B에게 직원들이 무관심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아 지내던 중, B는 자살 충동을 느껴 커터 칼로 자해 소동을 벌였고, 본인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정신병원에 생활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병원 생활이 좋다며 웃음을 지었다. 퇴소 후 B는 가끔 시설에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직원들에게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설에 있을 때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아요”라고 어른스럽게 대답하는 B를 보면 안쓰럽다.

실천가는 B가 관심을 원할 때 충분히 대화하며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했다. 또한, 시설의 한계를 핑계로 대며 노력을 게을리한 점과 B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했다.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힘든 가정환경에서 온 사람들이며, 애정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에게 관심받기를 원한다. 직원들은 당사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요청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성찰했다. 사례 B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B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보육원에서 시설로 전원, 거짓말, 폭력, 용돈 갈취 등 도전적 행동, 관심받기 위한 자해 행동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방어적 대응, 도전적 행동에 단합하여 무관심으로 대응, 이용자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용자는 관심을 더 얻으려는 시도 지속, 이용자의 애정결핍과 관심에 대한 욕구를 읽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자해로 병원에 입원하며 삶의 질 저하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 지원이 필요함

3) 사례 C: 원가정에서 고착된 도벽과 폭력 행동으로 시설 전원

C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이전 시설에서 폭력 문제로 퇴소하게 되었으나, 원가족의 적극적인 입소 희망으로 현재 시설에 전원 되었다. 시설에서는 C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족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았다. 입소 후 C는 다른 이용자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고집을 부리며 폭력을 사용하는 등 도전적 행동을 보였다. C는 다른 이용자에게 국을 끼얹거나 물건으로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했다. 담당

www.kci.go.kr

VOICEYE voiceye.com

직원이 이 문제를 원가족과 상의했으나, 문제행동이 반복되면서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원가족은 C가 문제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자극해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입소 당시 원가족과 신뢰를 쌓았던 직원이 담당자가 되어 원가족과의 상담을 다시 시작했다. 원가족의 이야기를 세 시간 동안 들은 후, C의 행동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C의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어머니는 그로 인해 병을 앓게 되었고, 비장애인 언니가 집안일을 맡아 하면서 동생인 C를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았다. 이 과정에서 언니는 C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도 야단을 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C의 행동이 고착된 것으로 보였다. 언니는 자신이 측은지심으로 사랑을 주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으며, 상담자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언니에게 격려와 지지를 표현했다.

시설 담당자는 C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일원화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함을 안내했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기본 교육을 필수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시설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것임을 알렸다. 원가정 방문 시에도 언니 물건을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생활관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자신의 용돈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주도록 지도했다. 문제행동이 반복되면 원가정 방문에 제한이 생길 것임을 전달했다. 일원화된 지도가 초기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한 차례 원가정 방문 기회가 제한된 후, C의 폭력적 행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도벽 문제는 환경적 변화를 통해 예방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물건을 옷장에 잠금장치로 보관하게 했다. C는 여전히 도벽을 가끔 보이지만, 폭력적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많은 원가족은 시설 입소 후 연락을 끊거나 돈을 요구할 때만 연락하지만, C의 원가족은 항상 C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 직원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원가족과도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직원과 원가족이 서로 믿고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를 지원할 뿐 아니라, 대상자를 둘러싼 생태계 자원과 연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성찰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량 개발로 이어진다. C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표 4〉 C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이전 시설에서 폭력으로 시설 전원, 도벽과 폭력 문제, 원가족이 이용자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못함, 직원과 원가족 간의 갈등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원가족의 훈육 부족으로 이용자의 도벽과 폭력 행동이 고착됨, 원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라포형성, 원가족의 협력이 중요함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사랑으로 훈육함, 원가족과 협력 강화, 시설과 원가족의 협력이 이용자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됨, 도벽 예방을 위한 조치

4) 사례 D: 부친 요구로 조기 퇴소 후 시설 전원과 불안정한 자립생활

어린 시절, 부친의 방임과 도박으로 D는 보육원에 입소했다.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현재 시설에 입소했다. D는 입소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직원의 지원이 많이 필요했다. 언어표현이 미숙하여 눈치만 보며 의사 표현이 서툴고 울기만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은 D가 단체활동에 어울릴 시간을 마련하고, 점차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주었다. 시설 생활이 안정되면서 작업장에서의 태도도 좋아져서 급여를 모았다.

그러나 부친이 가끔 연락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재정을 원가족이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부친은 몇 차례 돈을 요구하다가 D의 퇴소를 요구했다. D는 처음에 원치 않았지만, 결국 부친과 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조기 퇴소했다. 자립정착금과 모은 돈 500여만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부친과 함께 살았다. 부친은 D가 금전적 이익과 집안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D는 집안일을 잘하지 못해 부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친은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표출했고, D는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다.

통장의 잔액이 바닥이 되자 부친은 D의 재입소를 요구했고, D는 부친의 집에서 생활하는 3~4개월 동안 체중이 20kg 이상 증가했고 무의미한 표정으로 퇴행했다. 시설에서 조금씩 자기 의사를 표현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입소를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어 D와 부친과 상의한 끝에 다른 시설로 전원을 의뢰했다. 퇴소 후 간헐적으로 연락이 오다가 4년 만에 D로부터 전화가 왔다. D는 새로 전원한 시설에서 남자 이용자의 아이를 낳고, 결혼 없이 남편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시설에 계속 생활하고 본인만 남편의 부모와 살고 있다. 양육은 시어른들이 도와주고 있고 자신은 잘 지낸다고 한다. D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반가웠고, 돌잔치 초대도 받았다. 부친의 안부를 물어보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실천가는 시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성찰했다. 원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www.kci.go.kr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원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족의 강제적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실천가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겼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을 성찰했다. 사례 D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D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보육원에서 장애인시설로 전원, 부친의 요구로 이용자가 마지못해 조기 퇴소, 자기결정의 모호함, 퇴소 후 삶의 질 저하 및 퇴행, 다른 시설로 재입소, 출산 후 남편 없이 시댁 생활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부친의 금전적 요구와 퇴소 결정, 금전 소진 후 부친의 요구로 재입소 요구, 다른 시설로 전원, 원가족의 요구를 시설에서 거절하기 어려움, 시설 개입과 책임의 한계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수용, 이용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안내,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

5) 사례 E: 애정결핍으로 폭력 행동을 하며 자립을 기대함

E는 보육원에서 장애인시설로 전원하여 1년 동안 생활하다가 퇴소를 앞두고 있다. E는 키가 크고 덩치도 크며 감정 기복이 심하여 종종 도전적 행동을 보이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보육원 동기들에 따르면, 학창 시절에도 폭력에 연루되어 담당 직원이 경찰서와 학교에 불려간 경험이 있었다. 입소 의뢰 당시 폭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직원들은 E의 행동에 당황했다.

E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다른 이용자들을 때리거나 밟는 행동을 하며, 최근에는 폭행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흥분 상태에서 경찰과 직원에게 큰소리를 치고 폭언했지만, 설득 끝에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직원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E의 변화는 쉽지 않았고 고착된 기질적 문제로 보인다. E는 감정조절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거부했다. 폭력이 다른 이용자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E는 시설에서 나가 자립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립을 위한 노력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자립하려면 안정된 직장과 재정이 필요하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는 일을 힘들어하고, 보호작

www.kci.go.kr

업장에서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동료와의 불화로 직장을 자주 옮기고 있다. 현재는 실직한 상태로, 공동생활가정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상태이지만, 현재의 태도로 공동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와 같이 도전적 행동 수위가 높아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해가 되면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쉽지 않아서 퇴소를 마지막 수단으로 두고 있지만, 원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E는 자립을 향해 가야 하는데, 불안정한 자립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E를 대하는 직원들도 힘들어한다. E는 어릴 적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부모도 없어 배우지 못해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고 호소한다. 또한,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편은 없다고 한다. 직원들은 E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무한정 사랑으로만 대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랑받지 못한 유년기의 상처를 현재의 사랑이 다 채울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거짓말과 약속을 불이행하는 이용자를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퇴소까지 그냥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고, 형식적인 인사만 유지하기도 한다. E를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E는 자기편이 없다고 호소하지만, 나는 네 편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을 아는 E가 한 번은 “고맙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그 말에 힘을 얻고 그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E가 자립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대하며 동반해야 한다고 성찰했다. 사례 E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E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시설 간 정보 미전달, 유년기 상처, 폭력과 감정조절 어려움, 애정의 욕구, 자립의 욕구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직원 피로로 방어적 대응, 이용자에 대한 불신,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에도 변화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음, 시설의 역할에도 개입의 한계, 근로의욕이 낮음, 직장 내 적응 문제, 불안정한 자립 전망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힘이 되는 존재, 진심으로 동반함

6) 사례 F: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로 과소비와 금전 관리 어려움

F는 지적장애가 있는 시설 생활자로, 과소비로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새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약금이 백만 원 이상 발생하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하

www.kci.go.kr

voiceye.com KOR VOICEYE

루에 백만 원을 지출하기도 한다. 대리점에서는 F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휴대폰 개통을 허용한다. 시설 근처 대리점에서 양해를 구하면 시내까지 나가 개통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통신사의 납부 독촉장이 수시로 날아오고 재정 상태는 악화된다. 직원들이 통장을 관리하면 F는 은행에 가서 분실 신고 후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한다. 용돈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시도하고, 먹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보장비와 급여를 미리 인출하여 병원비나 검사비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F에게 이러한 소비의 이유를 물어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응 기술이 뛰어나고 여러 활동과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F는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주치의 진단을 받았다. 스스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편이 넉넉지 못한 누나가 원가족으로 있으나 금전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다.

F는 다양한 방법으로 과소비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여러 차례 언어로 안내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월 2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 사업장에서는 적응이 힘들어 조기에 종료했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작업장을 찾기 위해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금전관리이다. 자립 후에는 소비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초기 사후관리 기간에는 직원의 관리로 괜찮으나, 사후관리가 끝나면 연락이 끊기고 재정이 거의 사라져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F의 경우, 자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부채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

한번은 F가 자진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하며, 입원하면 소비 성향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입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퇴원 후 더 큰 소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직원들은 F를 위해 어떤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지금으로서는 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가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기 좋아한다는 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F에게 아직 기회가 많은 젊은 나이임을 강조하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했던 과정을 성찰했다. 사례 F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표 7〉 F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조울증 의심 소견, 원가족의 지지 부족, 금전 관리의 어려움, 스트레스로 인한 과소비 행동,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진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시도, 시설 역할의 한계, 언어로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신병원 입원이 해결책이 아님, 퇴원 후 더 큰 소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큼, 자립이 어렵고 부채 해결이 시급함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함, 미래를 함께 설계

7) 사례 G: 채팅과 가출 반복 후 퇴소하여 기초수급 생활

G는 보육원 시절부터 채팅을 통해 남성과의 만남을 위해 가출을 반복해 왔다. 시설 전원 시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입소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입소 후 첫 명절 전날, G는 외출 후 돌아오지 않았고, 지원들은 외출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G는 채팅남을 만나러 나갔고, 결국 직원이 새벽에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직원은 G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적장애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울분을 느꼈다. 그러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전 시설 관계자에게는 화를 표현하지 않았다.

시설 직원들은 회의를 통해 성교육을 강화하고 폐해에 관한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했지만, G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다. G는 채팅을 통해 관심받는 것을 즐겼고, 쉽게 끊지 못했다. 상대방은 하룻밤의 만남을 위한 접근이지만, G는 그저 받는 관심이 좋았을 뿐이다. 직원들은 G에게 관심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매일 감정일기를 쓰게 하고,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누며,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G는 다시 채팅을 시작했다. 지적장애인들은 본능적 욕구가 강한 편이며, 성 문제는 강한 성욕보다는 애정결핍으로 인한 관심받기가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여러 차례 채팅으로 가출을 반복하던 G는 결국 자발적으로 퇴소를 결정했다. 부산에 있는 모 씨와 두 번 만남을 한 후 결혼 약속을 맺었다. 시설에서 함께 자립을 준비하자고 제안하던 중에 G는 가출했다. 본인의 돈으로 집을 구했으나 남자 명의로 등록했고, 살림살이와 생활비를 부담했으나 돈이 바닥나자 두 달 만에 헤어졌다. 시설로 돌아오라는 제안에도 G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거절했다.

G는 가끔 연락을 하여 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살이 많이 찐 모습을 보고 직원은 걱

www.kci.go.kr

정을 표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웃었다. 현재 G는 일을 하지 않고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며 여전히 채팅을 끊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은 그에게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관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 제공할 것이 없음을 느끼며 도움의 한계를 절감했고, 어떤 방식으로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사례 G에 대한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G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시설 간 정보 미전달, 보육원 시절부터 채팅 만남을 위한 가출과 과소비 반복, 채팅을 통해 관심받는 것을 즐기고 원함, 애정과 관심의 욕구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직원의 관심을 가져주기 위한 노력에 한계, 채팅으로 돌아가는 상황 반복, 시설에서 함께 자립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으나 가출함, 준비가 부족한 자립생활, 자발적 퇴소 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상황에 한계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퇴소 후 지속적인 지원 필요,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강조, 소통과 도움의 문 열어놓기

2. 사례 간 분석

사례 간 분석에서는 앞서 수행한 사례 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위범주들을 모아 범주를 도출했다. 이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결과,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시설 입·퇴소 과정에 대한 성찰로,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를 다룬다. 두 번째 주제는 시설 생활에 대한 성찰로,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을 포함한다. 세 번째 주제는 시설 퇴소 후에 대한 성찰로,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를 제시한다.

1) 주제 1. 시설 입·퇴소 과정: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

(1) 시설 입소와 갈등 조정

보육원과 장애인시설 간 전원 사례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과 원가족 간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A 사례에서는 퇴소 후 사후관리가 부족해 다시 입소가 요청되었고, C 사례는 폭력 문제로 전원이 이루어졌으나 원가족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D 사례는 부친의 요구로 시설 퇴소 후 생활 능력이 퇴행하여 다른 시설로 전원 되었으며, E와 G 사례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시설이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설 전원 및 재입

www.kci.go.kr

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조정을 보여준다.

(2) 시설 역할과 책임의 한계

A 사례에서는 자립을 경험한 후 재입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를 설득해 긍정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D 사례에서는 부친의 요구로 급작스러운 퇴소가 이루어졌고, 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강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다. F와 G 사례에서는 금전 관리와 자발적 가출 문제에서 시설의 개입이 한계에 부딪혔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자립을 지원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에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3) 시설과 원가족 간 연대와 협력

C 사례에서 원가족은 시설과 협력해 문제행동을 개선하려 노력했으며, 원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D 사례에서는 부친의 금전적 요구로 인해 이용자가 퇴소하였고, 그 후 생활 능력이 퇴행하는 등 가족이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원가족은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 요구의 대상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설과 원가족 간 연대가 문제해결과 이용자 지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표 9〉 주제 1. 시설 입·퇴소 과정: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

성찰 단계	범주	하위범주	사례
기술	시설 입소와 갈등 조정	시설 전원 및 재입소 과정	A, B, C, D, E, G
		원가족과의 갈등 및 문제해결	C, D
평가	시설 역할과 책임의 한계	시설의 역할과 책임	A, D, E, F
		시설 개입의 한계	D, E, F
계획	시설과 원가족 간 연대와 협력	시설 간 정보 협력	A, E, G
		원가족과 협력의 중요성	C, F

2) 주제 2. 시설 생활: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

(1) 관심이 필요한 문제 상황들

시설 이용자들은 거짓말, 폭력, 자해 등 도전적 행동을 보이며, 이는 관심 부족이나 정서

www.kci.go.kr

적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A, F, G는 채팅이나 스트레스성 과소비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와 B는 폭력 및 거짓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들은 종종 정서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

(2) 직원의 미흡한 대처와 실천적 한계

직원들은 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이용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해 노력하지만, 종종 실천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B 사례에서는 직원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의 마음을 읽어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했으며, A 사례에서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용자의 더 나은 삶에 집중하여 상담을 진행했다. F와 G 사례에서는 과소비 문제와 채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G는 채팅과 가출을 반복했고, 퇴소 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직원들은 한계를 절감했다.

(3)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

시설 이용자들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종종 도전적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는 유년기의 사랑 결핍으로 인한 상처로 적대감을 표출했으나, 직원의 진심 어린 지원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C는 가족의 훈육이 부족하여 도벽과 폭력 문제가 고착되었으나, 시설과 가족 간이 협력을 통해 사랑이 담긴 훈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훈육과 진심이 담긴 동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다.

〈표 10〉 주제 2. 시설 생활: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

성찰 단계	범주	하위범주	사례
기술	관심이 필요한 문제 상황들	금전 관리의 어려움	A, D, F, G
		거짓말, 도벽, 폭력 등 도전적 행동	B, C, E
		채팅 만남, 가출 등 일탈 행동	A, B, G
		정신건강 문제	A, B, E, F
평가	직원의 미흡한 대처와 실천적 한계	직원 피로도 누적으로 방어적 대응	B, E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성찰	A, B, D, E, F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의 한계	B, F, G

www.kci.go.kr

성찰 단계	범주	하위범주	사례
계획	사랑으로 훈육하며 진심으로 동반함	애정과 관심의 욕구	B, E, G
		원가족의 영향과 지지 부족	C, E, F
		사랑으로 훈육하며 진심으로 동반함	C, E

3) 주제 3. 시설 퇴소 후: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

(1) 미완의 자립 여정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자립을 희망하지만, 금전관리 직업 유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D는 시설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이어가던 중 부친의 요구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해 퇴행했고, 결국 다른 시설로 전원되었다. E는 근로의욕 부족과 동료와의 잦은 불화로 인해 자립 전망이 불안정하다. F는 과도한 소비로 인해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처럼 자립의 욕구가 크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불안정한 자립전망, 준비 부족이 미완의 자립 여정으로 이끈다.

(2) 퇴소 이후 남겨진 과제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생활이 순조롭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G는 가출과 퇴소를 반복하며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고 있고, D는 남자 이용자의 아이를 낳아 남편 없이 시댁에서 생활 중이다. 이러한 사례는 퇴소 후 삶의 질 저하와 사후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체계와 사후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3) 소통의 문 열어놓기

시설 이용자들의 입·퇴소 결정 시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나 직원의 요구로 인해 자기결정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D는 퇴소 후 4년 만에 시설과 연락을 취하며 자신이 시설에서 만난 남자 이용자의 아이를 낳아 살고 있음을 알렸다. G는 여전히 채팅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직원은 그가 혼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용자들이 퇴소 후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직원과의 열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직원들의 지원과 소통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립의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www.kci.go.kr

VOICEYE voiceye.com

〈표 11〉 주제 3. 시설 퇴소 후: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

성찰 단계	범주	하위범주	사례
기술	미완의 자립 여정	자립의 욕구	A, E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A, E, F
		불안정한 자립 전망	E, F, G
		준비가 부족한 자립생활	D, G
평가	미해결의 과제	퇴소 후 삶의 질 저하	B, D, G
		퇴소 후 자기관리의 어려움	A, F
계획	소통의 문 열어놓기	자기결정의 모호함과 선택의 존중	A, D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필요함	B, D, G

V. 논의

주제 1.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를 통해 이용자의 존엄성과 존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UN CRPD, 2022)는 장애인 '당사자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서경주 외, 2022: 99).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실천 전략인 '사람중심실천'은 장애인과 실천가 간의 관계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Smull et al., 2005: 17; 이상종, 장순욱, 2021: 8). Harvey(2012)는 지적장애인의 문제행동이 부적응적이라고 판단되어 행동수정이 필요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반응일 수 있다고 해석하며, 이들에게는 안전감, 의사소통, 그리고 연대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톨릭교회의 카리타스 윤리강령은 '연대'를 강조하며,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고통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최현순, 2015: 84-101).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 2014)는 연대를 통해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드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대는 시설, 가족, 직원이 하나가 되어 이용자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협력적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www.kci.go.kr

주제 2.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 시설 이용자들은 과도한 채팅, 거짓말, 폭력, 자해 등 다양한 도전적 행동을 보인다. 지적장애인들은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감정조절, 금전 관리, 생활 규칙 준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서경주 외, 2022; 차영란, 조선영, 김경록, 2022). 때로는 일탈적 행동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한다(서경주 외, 2022). 금전 관리의 문제는 장애 특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차영란 외, 2022), 관심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과도한 채팅이나 통신비 지출과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자립생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사람들을 그리워하며(전양희, 2013), 여성 지적장애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종종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김민영, 2018). 그러나 장애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된 탓에, 성적인 호기심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신준용, 최재원, 2021).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해와 같은 도전적 행동을 단순한 문제로 보기보다 그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며, '개별적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노이연, 2017: 15).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훈육 부족이나 정서적 지원 부족이 도벽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사랑과 훈육의 조화가 필요하며, 사랑으로 훈육하며 진심으로 대하고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 연구에서는 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이면에 숨겨진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이해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영만과 김미숙(2022)의 연구는, 폭력 행동이나 부적응 사례에서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이용자들이 사랑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했다.

가톨릭교회의 가치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인간의 구원자, 10항).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은 공허해진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따라서 시설 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손길'이며, 이는 '아낌없는 관심'으로 표현된다(간추린 사회 교리, 222항). 진정한 사랑은 공손함, 존중, 인내를 통해 성장하며, 그 본질은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행하지 않는다(사랑의 기쁨, 99항).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사랑과 훈육을 조화롭게 하여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사랑의 기쁨, 119항). 이러한 역할이 가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설에서 이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www.kci.go.kr

VOICEYE voiceye.com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시설 역할과 책임의 한계’, ‘직원의 미흡한 대처’, 그리고 ‘미해결의 과제’를 경험했다. 특히, ‘직원 피로도 누적으로 방어적 대응’과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의 한계’가 두드러졌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더 나은 실천’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천적 한계’를 절감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종열 외(2021)의 그리스도교 영성 살이 관점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실천 과정에서 이용자의 행동이나 문제를 단순히 시설 역할이나 실천가의 직무 역할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가 겪고 있는 존재적 아픔과 욕구를 먼저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과 진심으로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보호하고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자아존중감 향상,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황종열 외, 2021). 본 연구에서 감정조절이 어렵고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E가 실천가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한 것은, 도전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천가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이용자의 마음에 전달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랑과 진심 어린 태도가 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의 도전적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은 단순히 문제행동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존재적 아픔과 욕구를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과 진심으로 그들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는 실천가와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용세응, 김승주, 2023).

주제 3.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소 후에도 가족의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최문정, 2011). 지적장애인들은 퇴소 후 자립생활에 정착하기까지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소속 기관이 없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서경주 외, 2022). 이러한 문제는 탈시설 이후 친구나 이웃이 없어 지역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예산 부족으로 사후 지원에도 한계가 존재한다(성명진, 2019).

서경주 외(2022: 116)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경험을 연구하며, 일관된 공공 및 민간 지원체계의 부재와 당사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권익옹호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2011: 52)은 지적장애인이 자립홈에서 생활할 때 가족, 선생님, 이웃, 후원자 등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박종숙 외(2024: 98-99)는 주거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한 당사자

www.kci.go.kr

의 경험에서 선생님, 동료 등 든든한 지원자 역할이 자립에 힘이 된다고 밝혔다. 외국 연구에서도 탈시설화가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Bredewold, Hermus, Trappenburg, 2018). 세계보건기구(WHO, 2014)는 탈시설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중 하나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영란 외, 2022).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cCarron et al., 2019; 차영란 외, 2022). 본 연구에 소개된 사례에서도 퇴소 후 재입소, 시설 전원, 정신병원 입원 등 불안정한 자립 과정을 겪는 이들에게 시설 직원들이 지지자이자 옹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설 직원은 이용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이 미완의 자립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이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후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김미숙(2024: 69)의 주장과 일치한다.

가톨릭교회의 시각에서 자립은 단순히 독립적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조화롭게 연결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110항, 125항). 김미숙과 도건창(2022: 131-132)에 따르면, 가톨릭 사회복지사의 사랑실천은 '가족 같은 관심'을 바탕으로 '상호주체적 동반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퇴소 후 이용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 결과, 실천가들은 지적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성찰일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2차 자료의 특성상 자료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궁금한 점을 확인하거나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여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체성과 가톨릭 기관 종사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가톨릭 사회복지의 이중 관점에서 실천 방안을 논의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국의 천여 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실천가들과 종교 사회복지 실천에 관심이 있는 현장 실천가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kci.go.kr

VOICEYE voiceye.com

참고문헌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2005). 간추린 사회 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김미숙 (2024). 한국의 탈시설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경험 연구의 질적 내용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65,** 45-78.

김미숙, 도건창 (2022). 근거이론으로 살펴본 가톨릭사회복지기관 실천가의 사랑실천 과정.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1),** 121-152.

김민영 (2018). 여성 지적장애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지적장애연구, 20(3),** 75-98.

김민철 (2017). 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김성철 (1995). 성서적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이념. **기독교와 사회복지,** 46-66.

노이연 (2017). 성인지적장애인의 자해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도건창 (2022). 카리타스학 입문 1. 청주: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출판부.

라이너 게리히 (2008). 교황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카리타스학에 대한 고찰. **가톨릭사회복지**, **4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박영만, 김미숙 (2022). 가톨릭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사랑실천에 대한 자전적 사례탐구: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을 중심으로. **카리타스복지논총, 17(1),** 45-74.

박재완, 김도우, 박지혜 (2024). 가톨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거주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카리타스복지논총, 19(1),** 31-61.

박종숙, 황정우, 박나경, 강우혁, 이승아 (2024). 정신장애 당사자의 주거서비스 경험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51,** 79-113.

박진영 (2011). 자립홈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2),** 35-59.

서경주, 박수경, 이정하 (2022). 혼자가 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생존 경험과 지원에 관한 사례연구 – 남성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4(4),** 95-127.

성명진 (2019).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과정,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신준용, 최재원 (2021).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연구 : 지적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장애의재해석, 2(1),** 215-255.

심현주 (2019). 가톨릭 사회복지의 시대적 과제: 자선과 ‘사회적 공공성’ 운동의 연대. **생명**

www.kci.go.kr

연구, 52, 13-35.

양혜원, 최정숙, 김희수 (2018).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 자조집단 실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성찰 연구 – 참여실행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62,** 103-139.

용세응, 김승주 (2023). 가난한 사람과의 동행에서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경험한 꽃동네 종사자들에 관한 연구. **카리타스복지논총, 18(2),** 31-64.

유영준 (2009).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실천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515-540.

유영준 (2018).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강령 제정에 관한 소고. **가톨릭사회복지, 4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유영준, 이현지, 김민수 (2020). 사회복지 성찰역량척도(reflective capacity scale)의 타당화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7(1),** 5-34.

윤견수 (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163-200.

이상종, 장순욱 (202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사람중심실천 학습조직 참여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1,** 5-33.

전양희 (2013).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경험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차영란, 조선영, 김경록 (2022).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8,** 5-28.

최무열 (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집.

최문정 (2011). 탈시설 장애여성의 생애체험: 대상에서 주체로. **장애의재해석,** 215-268.

최현순 (2015). 공동체의 구성적 가치로서의 연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교회헌장」9항에 함축된 연대의 신학적 개념. **신학과 철학, 27,** 81-11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4.4.19.).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99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2005).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교황 프란치스코 권고. 사랑의 기쁨.

황종열, 도건창, 김미숙 (2021). 가톨릭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성찰일지에 나타난 존재중심 영성 살이 실천 사례연구. **생명연구, 62,** 153-182.

Bredewold, F., Hermus, M., & Trappenburg, M. (2018). 'Living in the community'

www.kci.go.kr

the pros and con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the impact of deinstitutionalisation on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Journal of Social Work, 20(1),** 83-116.

Caritas Internationalis (2014).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한국카리타스인터네셔널 역).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3판(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Gibbs, G. (1988). Learning by doing: A guide to y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xford Polytechnic Further Education Unit.

Harvey, K. (2022). 문제행동 뒤에 숨어 있는 트라우마: 지적장애인을 위한 트라우마 기반 행동중재(강영심, 손성화 공역). 서울: 학지사.

McCarron, M., Lombard-Vance, R., Murphy, E., May, P., Webb, N., Sheaf, G., McCallion, Phillip, Stancliff, Roger, Normand, Charles, Smith, Valerie, & O'Donovan, M.A. (2019). Effect of deinstitutionalisation on quality of life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BMJ Open, 9(4).** https://doi.org/10.1136/bmjopen-2018-025735

Morse, J, M. (2015). Data were saturate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5(5),** 587-588. https://doi.org/10.1177/1049732315576699

Padgett, D.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유태균 역). 서울: 나남.

Smull, M. W., Sanderson, H., Sweeney, C., Skelhorn, L., George, A., Bourne, M., & Steinbruck, M. (2005). Essential lifestyle planning for everyone. The Learning Community-Essential Lifestyle Planning.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 CRPD). (202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2014). Innovation in deinstitutionalization: A WHO expert survey. World Health Organization.

논문 투고 : 2024.9.26.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0.

www.kci.go.kr

Abstract

A case study o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Catholic social workers' reflective journals

MeeSook Kim*

This study analyzes reflective journals of Catholic social workers to understand key issues in the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sse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ir challenging behaviors. It aims to explore practical challenges i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and propose improved practices.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seven reflective journals from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The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both within-case and cross-case comparisons, resulting in three main themes. First, the need for "collaborative solidarity between the facility and family" during the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ss. Second, the importance of "accompany challenging behaviors with love and sincerity" in care. Third, the value of "maintaining the door open for communication in the unfinished journey of independent living" after discharge. The findings are discussed from both general social work and Catholic social work perspectives, offering practical insights to harmonize these professional identities in their practice.

Keywords: intellectual disabilities, Catholic social welfare, independent living, reflective journal, Caritas

* Research Professor, Catholic Kkottongnae University

www.kci.go.kr